



민·관·산·학 경계를 넘어 언론을 더하다 - 미호천 유역 상생프로젝트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목적 및 배경

경계를 넘다

거버넌스 기구는 의제 발굴을 위해 조사·연구 및 다양한 논의구조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행정에 입안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또

한 충청북도 상생과 소통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관으로 민·관·산·학의 협력적 모델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및 의제 확산 그리고 정책 반영이 미흡한 게 현실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공고화된 민·관·산·학의 경계에 언론을 더하여 민·관·산·학·언의 새로운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언론 또한 취재 및 보도의 한계를 넘어 현장을 탐사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본 협의회는 민·관·산·학의 전문가 및 핵심 활동가 등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20여명의 위원은 사회, 경제, 환경, 기후·에너지, 마을자치, 교육문화 등 7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논의와 월례회의 및 포럼을 통해 생산된 정책을 행정에 녹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제 특히 새로운 영역의 큰 의제를 협의회가 지속적이며 자체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거버넌스 너머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어 협의회는 플랫폼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단일 정책 중심으로 새로운 민·관·산·학·언 거버넌스를 생산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체계 구축을 위해 언론이 지역 이슈의 문제점만 단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 발굴과 생산의 주체로 함께하여 주민 관심과 행정의 참여를 효율적으

로 이끌어 냈다. 지속가능한 의제 생성과 확산을 위한 민·관·산·학·언의 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업내용

왜 미호천인가?

미호천은 통합청주시의 출범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본류는 총 89.14km로 지방하천은 50.07km 국가하천은 39.07km이다. 국가하천 중 약 10km는 세종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역 면적은 1,860.9km²이다. 미호천 유역은 충북 전체 면적의 26%이며 충북 인구의 65%, 충북 경제 GRDP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폐수, 생활폐수, 가축분뇨 등으로 인해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사람이 떠난 미호천은 쓰레기 및 오·폐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언론을 더하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했던 모래하천 미호천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2014년부터 ‘상생의 유역공동체 미호천’ 포럼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미호천은 일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주민공감대와 정책적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민관산학의 중심축에 언론을 더해 미호천의 의제를 발굴하였다. 미호천의 가치, 역사와 문화, 생태적 중요성, 유역공동체, 물 관리 갈등



등 총 7차례에 걸친 포럼과 한·일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하천 미호천’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언론이 지역의 이슈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탐사하여 의제를 생산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찾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2015년에는 지역의 대표 일간지 중부매일과 함께 ‘세종·충북 상생물줄기 미호천 공동벨트’를 기획취재하였다. 일본의 교토 중심을 흐르는 가모가와를 방문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하천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도요오카시에서는 황새를 복원해 주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현장을 취재하였다. 총 14회의 기획특집을 보도했다. 2016년에는 4회에 걸쳐 미호천 관련 포럼을 현장 생중계로 지면에 실었다.

2016년 KBS라디오 유용의 시사투데이와 함께 라디오 충북탐사 ‘미래하천 미호천’을 주제로 발원지에서 합강까지 1년간 걸어서 탐사하였다. 총 5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며 환경, 역사, 문화, 생활 등 미호천유역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제를 생산하고 탐사의 긴 이야기는 라디오로 매주 목요일 방송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주요 현장은 9시뉴스로 20회 보도했다. 자료와 탐사기는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호천이 수면하에 드러나면서 지역 언론들이 ‘미호천’이란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인터넷 신문인 ‘충청미디어’는 탐사기를 ‘충북일보’는 미호천 칼럼, ‘충청투데이’는 기고를 통해 의제를 확산했다. 충청매일에서는 ‘물길 따라 금강에서 황해로’, 충청리뷰는 ‘미호천 르네상스’를 기획·취재하였으며, CJB청주방송에서는 다큐 “미호천”을 편성 제작하였다.



‘거버넌스 넘어 거버넌스’



1차 포럼(미호천 현황)



2차 포럼(녹색띠)



3차 포럼(생태적 가치)



4차 포럼(역사와 문화)

민·관·산·학·언이 함께 만들어 가는 미호천이 집중 부각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탄생하였다. ‘미호강 포럼’이다. 미호천포럼으로 발기된 미호강 포럼은 미호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 발대식을 가졌다. 환경·문화·지역주민을 공동대표로 선정한 미호천 포럼은 생태를 넘어서 미호강을 사람과 함께하는 본연의 강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식증진을 위한 미호천에서 놀기 등 교육·체험 사업을 하고 있다. 미호천 탐사를 하며 8개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미호천 유역협의체도 탄생했다. 하천관리에 있어 본류도 중요하지만 지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하천관리를 위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사)풀꿈환경재단,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지속가능협의회, 녹색청주협의회, 미호천 유역 13개 기업 등은 미호천 주요 지천인 진천 백곡천, 청주 무심천·소로천, 세종 조천, 주민 100여명과 함께 ‘하천 돌보미’를 구성하여 하천 감시활동, 교육홍보활동, 하천정화식물 식재, 하천정화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역협의체가 결성되었으며, 민·관·산·학·언이 함께하고 있다. 미호종개 살리기를 위한 네트워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황새포럼도 결성 중이며 10월 국제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교육네트워크는 현재 운영 중이다.

미호천 의제가 부상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청주 원평중학교 2학년 261명(8개반)의 학생들은 협의체와 함께 “우리 고장 생태·역사·문화속으로 풍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미호천의 지류하천인 무심천에서 미호천 합수머리까지 하천을 체험하며 중요성을 알아

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외래식물 퇴치운동’, ‘미호종개야 돌아와’ 등 다양한 행사를 미호천으로 다가와 진행했다.

또 다른 도전!

2014년부터 진행된 미호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진행되면서 민·관·산·학·언이 함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고자 또 다른 도전 ‘한남금북정맥’ 탐사를 시작했다. 한남금북정맥은 백두대간 속리산 천왕봉에서 분기하여 안성의 칠장산까지 충북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169.2 km의 산줄기이다. KBS라디오와 함께 1년간 한남금북의 마루금 및 그곳에 기대어 형성된 마을을 탐사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제를 생산하고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이를 계기로 백두대간 보전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는 7박8일간의 한남금북정맥탐사를 통해 식생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한남금북정맥 네트워크를 준비 중에 있다. 매주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남금북정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9시뉴스를 통해 현장 이슈를 취재·보도하고 있다.



5차 포럼(협의체 구성)



6차 포럼(미호종개)



7차 포럼(여천보 갈등)



한일하천 서식 환경



사업평가와 과제

2014년부터 포럼을 통해 의제를 제시하였다. 미호천 유역을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역사·문화 등 통합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미호천 유역공동체 형성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미호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둘째, 미호천 유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이슈와 의제를 발굴해 충북뿐만 아니라 세종 시민들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선순환 경제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였다.

셋째, 미호천의 생태적 복원과 충청북도/세종 시민들의 공동체 문화 회복을 통한 녹색벨트 조성을 제기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 냈다.

넷째, 자연형 하천 복원 및 미호천 녹색 띠잇기를 제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다섯째, 미호종개 및 황새 복원을 위한 서식지 조성 과 어류 모니터링을 통해 육상생태계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

여섯째, 민·관이 함께 미호천 TF팀 등을 구성하여 미호천 관련 다양한 정책을 검토 분석하고 정책 공약으로 만들어 내는 등 다양한 파트너십 체계를 만들어냈다.

미호천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다양한 영역으로 포함된다. 포럼을 통해 생성된 의제를 언론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로 형성, 시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천관리로



조금씩 우리가 꿈꾸는 하천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의제를 생산해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반영된다.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적인 주제일수록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 아니 행정의 무관심 속에 관심 밖의 영역으로 밀려 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산·학·언의 협치 모델이 중요하다. 주민의 참여와 정책을 이끌어내고 의제를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수단이다. 또한 정책을 생산하는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자칫 현장의 실천만 강조하다보면 민간 시민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고 그 지속성을 모니터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의제를 국가의제로

미호천은 민·관·산·학·언이 함께하여 지역의제를 국가의제로 만들어간 대표적인 모델이다. 주민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버려진 미호천이 우리 하천으로 변하면서 2016년 충북도는 미호천 TF팀을 가동해 미호천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생산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당시 지역 공약으로 만들어 냈고 당당히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책 내용은 '대청호·충주호 미호천 국가 생태·휴양지구 조성'으로 미호천 유역은 '자연인간 공존도시 조성'(블루네트워크조성)으로 정해졌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거버넌스가 진행되면서 개발 중심이 아닌 공존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